

대학청년부, '2020 사랑애틀 나눔'

12월 5일, 12일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1천 명 참가
서울시내 불우이웃 및 차상위 계층 1천 가구 지원

‘2020 사랑애틀 나눔사역’이 시작된다. 올해 대학청년부 사랑애틀 나눔사역은 12월 5일(토)과 12일(토)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청년 1천여 명이 서울시내 불우이웃과 차상위 계층 1천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쌀과 반찬, 생필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요셉청년부는 중랑구복지관, 길청년부는 종로노인복지관, 여호수아청년부는 교남주민센터와 사직주민센터, J4U청년부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SNS청년부는 수서명화복지관과 산마루교회, W청년부는 나섬교회, 갈렙청년부는 답십리주민센터, CH PLUS청년부는 등대교회를 섬길 예정이다. Pole2대학부는 작은자교회, 허브대학부는 신앙장로교회, 나눔센터, 중앙사회복지관을 섬긴다. 하늘대학부는 관악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사랑애틀 나눔사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실시한다.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필품도 햄살, 마스크, 라면,

삼푸세트, 주방용품, 칫솔치약세트, 반찬 등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지난해 사랑애틀 나눔사역에는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청년 1,070명이 참가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부장)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사랑애틀 나눔사역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뜻깊다”며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다.

사랑애틀 나눔사역은 서울 전역에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눠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대표적인 겨울사역이다.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진은 지난해 대학청년부 '사랑애틀 나눔사역'.

NGO 더멋진세상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11월 24일 저녁 7시 30분 유튜브 채널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11월 24일(화) 저녁 7시 30분 NGO 더멋진세상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이재훈 담임목사,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 현지 사역자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2010년 창립된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0년 동안 지구촌 가난한 이웃들을 가장 가까이

에서 섬겨왔다. 지구촌 전역에서 618,021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2017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며 명실공히 국제적인 NGO단체로 발돋움 했다. 올해 NGO 더멋진세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구촌 이웃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엔젤트리 사연 게시

온·오프라인 참여 가능

11월 14일부터 2020 엔젤트리 사연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와 엔젤트리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다. 엔젤트리에 참여해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정의 선물을 보내고 싶은 성도들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교

회 로비에 전시된 엔젤트리에서 사연을 뽑으면 된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랜덤으로 배정해주는 사연을 확인한 다음 연결하기를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고 사연을 선택하면 문자메시지로 사연 대상자의 정보와 안내가 발송된다. 연결된 사연을 확인할 수도 있다.

문의: 02-3215-3358, 3435

순장들을 위한 축제 '2020 순장블레싱'

11월 28일 오전 9시 각 캠퍼스 본당 및 유튜브

온누리교회 순장들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 2020 순장블레싱이 오는 11월 28일(토) 오전 9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막 오른다. 유튜브 중계도 한다. 유튜브 접속 링크는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

2020 순장블레싱은 온누리교회 순장들을 격려하고,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축복의 자리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장들이 대상이다.

2020 순장블레싱은 1부 토요일예배, 2부 순장블레싱 특별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부 특별프로그램에서는 순장 간증, 스킷드라마(순장들의 애환과 수고를 담은 내용), 순장 고백(인터뷰) 및 담임목사 화답메시지, 선물 전달, 축복과 기도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한 해 동안 순장들의 수고와 애로사항, 사역 모습 등이 담긴 영상도 상영한다.

스킷드라마에서는 '순장의 콜센터'를 주제로 온누리교회 교역자들과 순장들이 함께 연기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공동의회

일시: 11월 22일(주일) 3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안건: 임직자 후보 및 피택장로 선출 투표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철학이란 지식의 근원과 지식을 추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과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방법론으로, 비물질적이며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론으로 지적 탐구를 지속해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과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 과학자들이 탐구의 방법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들은 초자연에 대한 지식까지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초자연을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종교비판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앨빈 플랜팅가는 “기독교 믿음의 반대자이든 옹호자이든 모두 자신들 견해의 기반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우주 혹은 신의 존재나 그 기원에 대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는 다른 기반 위에서 있고 상대의 기반에 대해 비난하지만, 서로를 납득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이 맹목적이라고 폄하될 이유가 없으며, 기독교를 반대하는 논리가 반드시 이성적이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사실 기독교는 이성적 믿음을 요구한다. 성경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사

1:18)며 누가 맞는지 서로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져 보자고 도전한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맹목적 무신론이나 성경책은 덮어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 모두를 삼가라는 것이다. 전도할 때에도 그들의 질문이나 반문에 대해 대답할 내용을 예비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설득할 것을 요구한다(벧전 3:15).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골 2:8)고 할 때의 철학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서 그리스도는 모르는 철학’을 말한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가벼운 철학은 인간의 정신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나, 깊이 있는 철학은 인간의 정신을 종교로 향하게 한다. 기독교 철학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는 비판에 대응하여 깊이 있는 고찰을 거친 논리적인 철학을 대표한다. 그 세계관은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에서 시작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개개인에게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뼈대가 잡힌다. 이런 철학에 기반한 사람의 삶은 일관성, 합리성, 진실성을 가지면서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세계관을 형성한다.

철학의 인식론은 어떤 대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그 대상의 본질에 대해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이다. 초자연의 존재에 대한 믿음 유무에 따라 신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하기도 하고(유신론), 그 노력을 포기하기도 한다(무신론). 초

자연의 존재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간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의 차이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큰 인식능력의 차이를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자연 혹은 물질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모든 세계관들이 나름의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유신론과 무신론 모두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각 세계관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초월적 존재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동일하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논리적·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범신론인 뉴에이지에서는 개인(아트만)이 자연에 대해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고등한 자아(신 혹은 브라만)와 하나인 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즉시 알 수 있다고 믿는다. 마치 전기기구를 전원 콘센트에 플러그인(plug-in)할 때 작동하는 것처럼 깨달음만이 지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뉴에이지의 인식의 목적은 실재(reality)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도구일 뿐이다.

인본주의는 초자연을 부정하고 자연주의에만 매달린다. 그래서 과학이 모든 인식의 방법론이 된다고 믿는다. 그들에게는 물리적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진화의 결과로 인간에 이르러서야 정신과 이성이 생

겨났고, 그 이성을 사용하여 앎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공산주의 역시 유물론적 자연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모두 과학만이 진리로 접근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변증법적 유물론이 모든 것의 답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포스트모던은 모던시대의 세계관(인본주의와 공산주의)들이 너무 이성 중심, 과학 중심, 논리 중심의 고정된 틀 속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억압한다고 생각해온 언어학자,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관이다. 이들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며 주관적 진리를 주장하므로 기독교와 유신론에 대해서도 파괴적이지만 다른 무신론에 대해서도 똑같이 파괴적이다.

이처럼 유신론과 무신론적 세계관들은 물질과 자연을 인식하는 방법론도 다르며, 판이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우리 시대의 총돌하는 다른 세계관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이념들의 도전에 맞서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논리성과 타당성을 변호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세상은 지속적인 변화 속에 있으며 그것을 주도하는 이념들도 계속 변화하기에 끝없는 열심을 요구하는 힘든 작업이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묵상: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알고자 한 노력이 당신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균형 잡힌 허용과 통제

“아이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요즘 코로나19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시간인데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게는 대학생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보니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 강의는 들었니?”, “과제는 다했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라며 문을 꽂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들이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가족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

낼 수만 있다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많은 가정들이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늦은 저녁까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엄마와 자녀가 부딪힐 일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붙어 있게 됐다. 엄마는 하루 삼시 세끼 밥을 챙기는 것부터가 부담이다. 다른 가족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 필요가 있다. 엄마 혹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감사인사를 건네고 가끔 한 번씩은 설거지와 청소도 대신해주면 부담으로 가득 찼던 엄마의 마음이 금세 녹을 수 있다.

가정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각자의 시간과 생각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사연에서 엄마는 아들의 태도에 속상해 하고 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아들의 말투와 행동이 다소 거칠지만 아들의 시간과 계획, 생각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대학생 정도 된 자녀라면 스스로 삶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학점을 관리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할까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로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녀들의 모습이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잔소리를 더 많이 하고 싶어진다. 그럴수록 자녀들의 시간과 생각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렇다고 엄마가 자녀에게 죄인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자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알려주는 것 역시 부모의 역할이다. 허용만이 사랑은 아니다. 사랑은 허용과 통제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자녀의 무례한 행동이나 지나친 요구 등에는 부모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부모의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갈등을 겪었을 때 엄마의 감정이 어땠는지 말해주면 된다. “네가 문을 세게 닫았을 때 엄마는 당황했어”, “네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참

속상했어” 등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 해줘야 한다. 그러면 자녀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된다. 자녀와 나누는 솔직한 대화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적절한 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 자녀에 대한 허용과 통제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자녀의 시간과 생각, 계획을 존중하며 허용해주자.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그 시간이 부모의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의 지나친 요구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허용과 통제를 통해 자녀에게 사랑과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재건했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곱째 달에 있는 초막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초막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성벽은 지시와 관리와 리더십을 통해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지도자의 지시나 리더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도취되어 자신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겠다는 갈급한 마음 위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낮 시간의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기 원했고, 또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율법을 전달한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깊은 감동을 따라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렬해지고,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회개의 장입니다. 역사를 회고하며 역사를 압축해서 드리는 회개입니다. 시편 78편, 105편, 106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난 회개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회개기도의 결론이 33절에 나옵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1~6, 32~38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깊은 회개로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부흥의 역사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33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는 역사지만, 하나님은 도망치려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죄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인간들의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물리면서 세 번의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끊고, 또 끊으셨습니다. 인간은 또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만 결국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이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 때 반드시 과거의 삶을 되짚어 보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사건만이 아니라 출생 이후부터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일, 과수원에서 훔쳐 먹은 이야기 등이 나옵니다. 그가 〈참회록〉 후반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주신 것은 기억 속에서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모두 회개의 주제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기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억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념은 몇몇 사건만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 누군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죄를 지었다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

복 속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성들과 비옥한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과 과 농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숲과 풍성한 과일나무들을 다 차지했으며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 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25~26절).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의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가져오는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복의 근원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곤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한 곳은 광야가 아니라 에덴동산이었습니다.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 외에 모든 것이 자유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했고, 인간은 그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축복된 환경에서 타락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축복된 에덴동산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수없이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근원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축복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조건을 지키기 싫어서 무시했을 때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순종이 없는 축복은 그 축복을 받은 만큼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도리어 타락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

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안전한 그릇’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모든 축복이 안전한데, 불순종으로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징계와 심판을 받고도 반복해서 죄를 짓다

둘째, 그들이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하는 내용의 핵심은 징계와 심판을 받고도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복되는 그 자체가 벌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 그들을 원수의 지배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 대고 목을 뻗뻗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28~29절).

또다시 주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또다시 범죄 한 인간의 모습을 사단이 잘 알고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다시 죄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 늘 전략을 세웁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쓰인 책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하나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는다. 네 환자의 몸에 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단다.”

기분 나쁘지만 사실입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죄악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것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수정부터 생명! 남성도 공동책임!

생명의 시작은 언제이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정부가 지난 10월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초기(14주)까지 낙태 허용, 15~24주까지는 상담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낙태 가능, 미성년자의 낙태 접근성을 위해 보호자 동의 우회 절차 마련, 자연유산 유도 약물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왜 14주일까?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국내외 연구를 반영한 결과다.

생각해볼 문제가 또 있다. 여러 단체들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 낙태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여성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말 14주 이전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고, 낙태가 여성만의 책임일까?

/ 편집자 주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된다!

낙태 시점을 정할 때마다 불거지는 논쟁이 있다.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는 것이다. 생명의 시작은 전후가 갈리는 완전한 불연속점이 존재해야 한다. 여러 설이 있는데 첫째, ‘뇌파설’이다. 태아의 뇌파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임신 2~3개월 무렵이 생명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생명의 시작점으로 정할 수 없다. 이 시기는 이미 형성된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뇌파가 잘 감지되는 시점일 뿐이다. 둘째, ‘원시선설’이다. 임신 14일 즈음 뇌와 척수로 분화되는 원시선경관이 관찰되는 때부터가 생명이라는 설이다. 원시선은 이 시기에 단단해졌을 뿐 하루 전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단지 14일이 되기 전 수정란을 이용해서 배아실험을 하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셋째, ‘수정란설’이다. 시카고대학 스티븐 제이콥스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생물학자의 96%가 생명의 시작을 수정부터라고 응답했다.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가능한 수정의 순간이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주장이다.

수정의 순간은 전후가 완전히 구별되는 불연속점이다. 남성과 여성의 염색체가 만나 새로운 염색체 배열을 만들고, 이 배열이 영구적으로 이어진다.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된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수정란설은 성경의 입장과 같다. 다윗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고 말함으로써 잉태하는 순간부터 ‘나’를 인격체로 표현했다. 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시 139:16)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부터 인격적 존재인 ‘나’를 이야기한다. 또한 “아이 밴 여인”(출 21:22)이라고 표현함으로 태아를 엄연한 아이라고 말했다. 성경 원어로도 ‘태아’는 인격이 있는 ‘아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단순한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렘 1:5) 돌보시는 인격체라는 사실이다.

여성 인권을 강조하는 몇몇 단체들의 주장만 수용하려는 사람들은 이번 낙태죄 개정안의 위험을 말하지 않고 있다. 잘못 개정된 법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과 국민 정서에 해악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낙태가 합법이라고 배운 자녀들은 자신들이 배운 대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다. 불법(不法)의 기로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낙태가 쉽게 허용되면 생명경시 풍조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산모의 요청에 따라 낙태할 수 있다면 연약한 태아를 위

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를 만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상담소를 찾아가도 태아를 살리려 노력하는 상담사를 만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무서운 사실은 생명경시 풍조가 절대 낙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낙태를 허용한 나라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목숨을 거둬도 좋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태아 살해가 영아 살해로 이어진 것이다. 병약한 환자나 요양원에 누워있는 노인들의 안락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서운 일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여야 한다.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성교육을 해야 한다. 성, 결혼, 가정의 기록함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의 생명이 태아에도 온전히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성윤리다.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호기심만 키울 뿐이다. 프리섹스와 프리낙태가 자유라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함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망한다(호 4:6).

회복운동도 해야 한다. 낙태를 행한 자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 죄책감을 버리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그들의 상처와 죄를 덮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도 안 된다. 우리가 인간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 낙태가 죄임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로만 누릴 수 있다.

미혼모를 돕고 아기를 키우는 일에 힘을 보

태야 한다. 미혼모를 성윤리가 부족한 여성으로 보면 안 된다. 그들은 생명윤리를 지킨 어머니들이다. 아기의 생명을 지켜낸 엄마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해 죽으셨다. 또한 고아가 된 아기들을 입양하여 가정을 선물해주는 것 역시 교회의 할 일이다.

성도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법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임을 말해야 한다. 세상의 문화와 말을 의지하는 것은 멸망과 죽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이 생명이 된다.

우리의 생명운동은 세상의 법과 논쟁을 일으킬 것이다. 논쟁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침묵하면 안 된다. 생명 문제 앞에서 움츠러드는 교회는 다른 어떤 문제에서도 충격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세상을 달래려다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우리의 신앙마저 포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녀와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를 태중에서 성별하여 부르셨다.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영이비인후과 원장)

남성도 낙태에 공동책임이 있다

프랑스, 독일,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임신 12주까지는 임신부 요청(사회, 경제적 사유 포함)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낙태가 자유롭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임신 12주 이후 낙태 허용사유(임산부의 건강이나 태아의 건강상 이유로 한정)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가능하면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

한 낙태죄 개정안은 지나치게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태죄가 여성에 대한 처벌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 조항이 악법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추진해왔다. 비록 태아의 생물학적인 부(父)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낙태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태아의 아버지가 처벌까지 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명잉태에 함께 기여한 남성도 낙태에서 자유로

울 수는 없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아쉽게도 낙태죄의 주체에서 남성을 제외하였다.

남성은 임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낙태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태아의 생명에 대해 남성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남성을 낙태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아닌 낙태죄의 주체로 개정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남성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매우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남성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의무를 져야 하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거부 등의 부수적인 제도에까지 병행하고 있다. 독일도 태아

의 아버지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생부의 양육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낙태가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낙태가 자유로워진 시대에서 남성들은 더욱 책임을 지지 않고, 낙태의 고통은 더욱 여성들에게 떠넘겨지게 될 것이다. 책임감 없는 남성들이 양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부성애(父性愛)로 태아를 지켜내는 남성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권우현 변호사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코로나19가 가져온 세대별 아픔

교회가 ‘중장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4050 중장년들을 위한 사역과 프로그램 적극 제공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생활 전반에 수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더 좁아진 취업 시장 탓에 울고 싶은 심정이다. 중장년들은 골이 더 깊어진 가정문제와 갑작스러운 실직, 앞당겨진 은퇴에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노인들은 더 깊숙이 파고든 외로움과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세대별 아픔’을 주제로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교회가 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그 세 번째 세대는 중장년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코로나19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 얼마 전 일본의 방송인 코바야시 레이나가 한 주간지 인터뷰에서 이혼 소식을 알렸다. 그녀는 이혼 사유를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바야시 레이나는 “결혼 4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남편의 나쁜 생활 습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서로의 단점이 계속 보이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blue)의 합성어.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우울감과 무기력증)’, ‘코로나노미 쇼크(코로나19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등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꼬집는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코로나 이혼’이다.

코로나 이혼은 코로나19(Covid)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확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가정마저 흔들고 있다.

위기의 늪에 빠진 중장년
4050 세대들의 고통과 눈물

특히 재택근무 확대와 온라인 학습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전업주부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40대 주부 김은혜 집사(가명)는 코로나19 이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평소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가면 오전에 집안일을 끝내고 오후에 잠깐 쉴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하루 종일 머물면서 제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삼시세끼 가족들의 식사 챙기고, 빨래와 청소까지 해야 하니까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울고 나온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가족들이 오랜 시간 집에서 함께 머무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코로나 이혼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은혜 집사 역시 자녀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냈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학생 아들과 마찰이 있다.

“한참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어서 그런지 짜증이 부쩍 늘고, 남편과

저에게 대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보니 집중을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까지 잔소리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들과 부딪히는 일이 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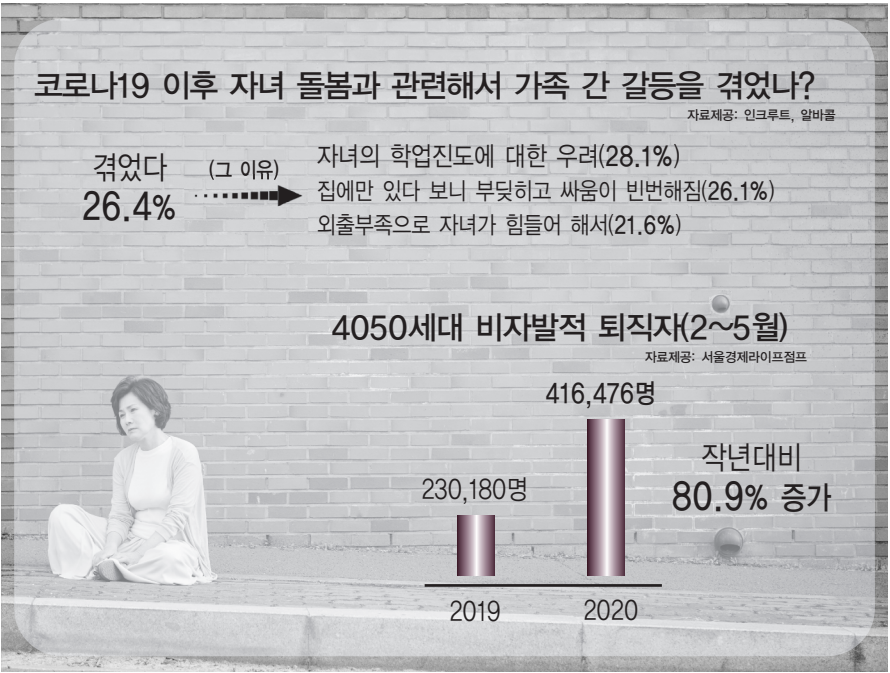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겪는 부모들이 많다. 지난 10월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학부모 24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부모 26.4%가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과 관련해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자녀와의 갈등 이유는 ‘자녀의 학업진도에 대한 우려(28.1%)’, ‘집에만 있다 보니 부딪히고 싸움이 빈번해짐(26.1%)’, ‘외출부족으로 자녀가 힘들어 함(21.6%)’, ‘매끼니 준비 어려움(21.6%)’ 등이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담과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비 지출이 부쩍 늘었는데 무급휴직, 단축근무, 비대면 업무 등으로 수입은 줄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허평안 성도(가명, 47세)는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일거리가 반 토막 났다고 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객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실적을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생활비가 지난해에 비해 50만 원 이상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요...”

4050대 중장년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경제라이프점프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올해 2~5월 4050세대 비자발적 퇴직자가 41만6,476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23만180명 대비 18만6,296명이나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80.9%나 증가한 엄청난 수치다. 비자발적 퇴직은 직장의 휴·폐업,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사유로 일을 그만 둔 경우를 의미한다.

4050세대 중장년의 불안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4일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중노년기 불안심리 연구’에 따르면 4050 중장년 세대의 불안심리 정도가 염려된다. 인생금융연구소는 지난 5월 전국 만 40~75세 남녀



만성질환자 800명과 일반인 200명 등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불안 빈도를 묻는 질문에 ‘자주 또는 항상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0대 21.9%, 50대 19.5%로 가장 높았다. ‘가끔 불안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40대 64.6%, 50대가 63.2%나 됐다. 이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40대 86.5%, 50대 82.7%는 불안심리를 느끼고 있었다. 4050세대 10명 중에서 8명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다. 불안심리를 촉발하는 이유로는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2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19.2%)’, ‘일자리 상실에 대한 염려(8.7%)’가 그 뒤를 이었다.

교회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

교회가 가정, 생계, 노후 걱정 등 위기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중장년들은 사회와 가정,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이자 가장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다. 교회가 중장년들이 위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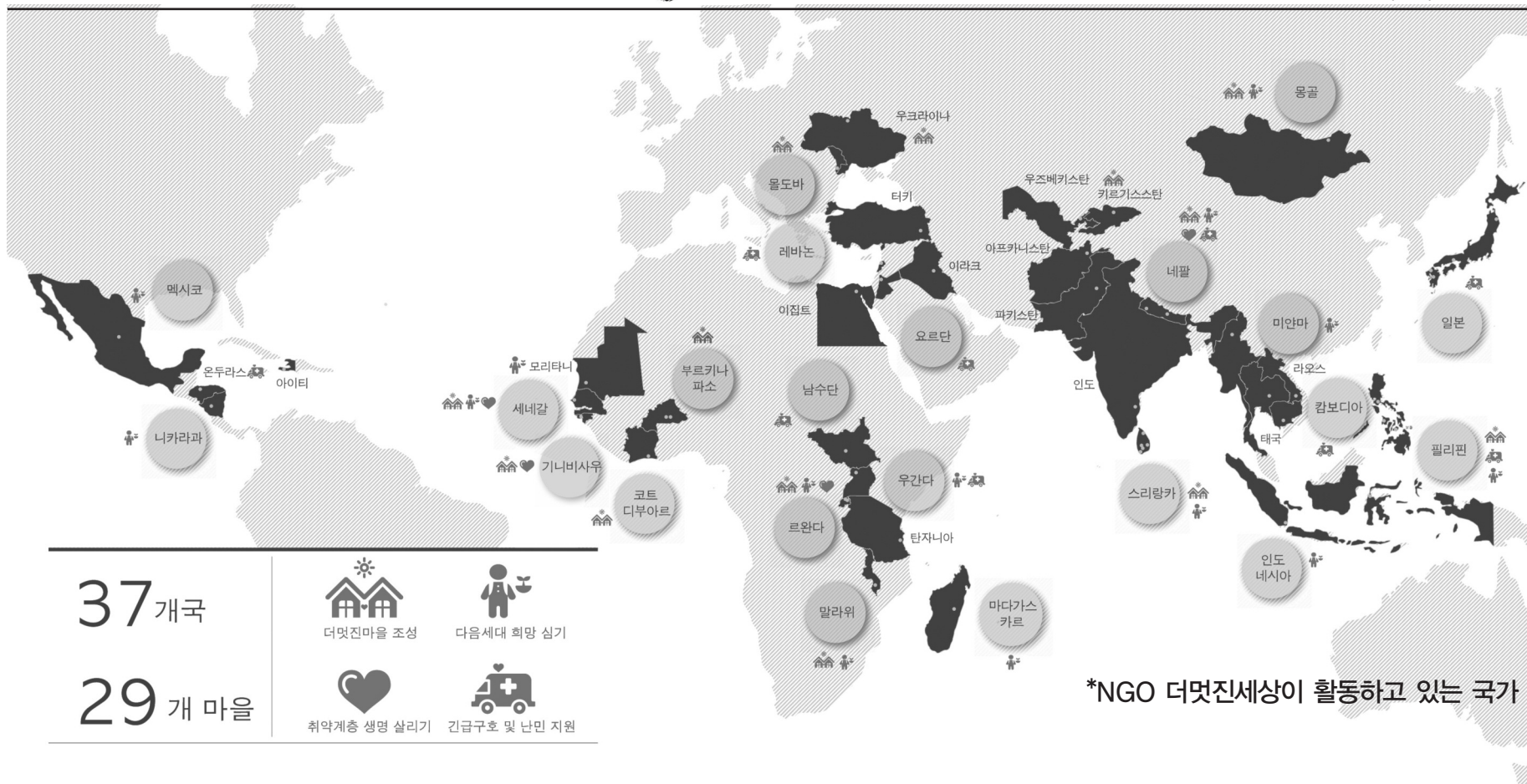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중장년들에게 적극 제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란노여미학교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를 해

결하도록 돕는 유튜브 채널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아이들과 생기는 갈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위태로운 가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부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등을 주제로 제작된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다. 코로나19 이후 겪고 있는 가정생활의 어려움부터 부부갈등,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의 외도 등과 같은 심도 있는 고민들을 나눌 수 있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돕는 글을 소개하는 것도 좋다. 온누리신문에서 연재하고 있는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칼럼을 읽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다. 두란노여미학교 이사장이자 가정상담 전문가 한은경 권사가 가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자녀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들은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파워임팩트는 부모와 자녀, 부부가 건강한 대화를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들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 실시하는 ‘부채탈출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관련기사 11면>.

코로나 블루 증상을 호소하는 중장년들은 온누리 상담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담실은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있다.



NGO 더멋진세상 태동부터 10주년까지

그 시작과 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지구촌 이웃 618,021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NGO 더멋진세상은 37개국에서 29개 마을을 개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의 태동부터 지난 10년 동안의 열매를 정리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지난 2010년 10월 10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 ‘더멋진세상’을 주제로 드린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 예배에서 하용조 목사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온누리교회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그 사랑을 전 세계에 나누자.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희망을 부여하자.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자.”

그해 12월 하용조 목사의 메시지가 씨앗이 되어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되었다. NGO 더멋진세상의 첫 번째 사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긴급구호였다. NGO 더멋진세상은 일본 이와테 현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지진피해 복구를 돕고, 지역 주민들을 돌봤다. 같은 해 6월 대홍수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후쉬푸르 지역을 섬기며 지역개발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인구 2%에 불과한 크리스천 지역인 후쉬푸르는 방치된 상태였다. NGO 더멋진세상

은 그곳에서 마을 복구와 더불어 현지 재단과 협력해서 마을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몇 차례 긴급구호와 마을개발 사업을 실시하면서 NGO 더멋진세상의 핵심 사역인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NGO 더멋진세상이 마을을 개발하는 이유

NGO 더멋진세상이 중점을 두고 있는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지구촌 최빈국 중에서도 가난한 마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흑자들은 “선교단체가 왜 지역개발 사업을 하느냐”고 질문한다.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어린이와 산모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시작됐다. NGO 더멋진세상은 초기에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영양결핍, 말라리아, 각종 수인성 질환으로 죽어가는 아이들과 산모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역에 집중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3년 초 두 명의 봉사자를 서부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 마을로 파견했다. 해마다 10여 명씩 사망하던 산모가 2명 이하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사망하는 산모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말라리아 환자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처럼 NGO 더멋진세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더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일이 생겨났다.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놓으니 먹어야 하고, 가르쳐야 했다. 어른들에게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소득이 필요했다. 그렇게 사역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폭넓은 사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NGO 더멋진세상이 결단을 내렸다. 마을을 통째로 개발하는 사업이 그렇게 탄생했다. 주민들의 필요를 돌보고, 환경,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학술적 용어로 ‘총체적 선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시작과 끝에는 지구촌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NGO 더멋진세상의 역할 주민들의 자립과 독립

먹고 마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던 선교지 주민들이 이제는 마을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국생 마을 주민들은 개울가에 튼튼한 다리를 놓지 못해서 비만 오면 4시간 거리를 걸어야 했다. 그 마을이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금 국생 마을 주민들은 변화의 중심에 있다. 지난 6월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흙과 돌을 지고 나르며 다리를 건축했다. 국생 마을의 변화를 목격한 이웃마을 주민들이 NGO 더멋진마을을 나서서 찾고 있다.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 마을은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도 네 식구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없는 기형적인 환경이었다. 그러나 NGO 더멋진세상이 제공한 농업교육을 받으면서 이전보다 수확량이 4~5배 이상 늘었다. 주민들은 협동농장과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도 알아가고 있다. 응호망과 마을의 변화는 이웃마을인 가혼도 마을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혼도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NGO 더멋진세상이 가혼도 마을에서도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진정한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구촌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몸소 보여주는 선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도 NGO 더멋진세상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 수많은 NGO 중에서 더멋진세상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실제로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강성 무슬림 마을에서 주일학교가 열리고, 복음화율이 2%에 불과했던 마을이 1년 만에 복음화율 30% 가까이 치솟는 열매들이 있었다. 천막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온 동네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과 선교사가 함께 사역하면 시너지가 엄청나다. 수년 동안 두드러도 열리지 않던 미전도종족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들이 펼쳐진다.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NGO 더멋진세상과 두란노해외선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융합선교 모델이 되고 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NGO 더멋진세상이 벌써 이양과 주민들의 자립을 논하는 것이 조금 성급할 수도 있다.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코로나19로 사역이 중단된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음세대가 이양과 자립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앞으로 10년은 다음세대를 키우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선교지 차세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교과과정을 추가하고 있다. 청장년들을 위한 농업 및 직업교육과 함께 인성과 영성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NGO 더멋진세상의 앞으로 10년이 더욱 기대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 교회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인류의 역사는 AD(主後)와 BC(主前)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전과 후로 나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의 중심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교회)가 새롭게 창조된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듯이 교회 공동체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는 말씀 위에 세워졌다.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새로워진 영적으로 거듭난(창조된) 성도들로 구성되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답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 말고도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들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깊은 연대를 통해 하나 되어 군대보다 강한 공동체도 있다. 교회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공동체이므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혁명적인 메시지

사람들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에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그 말씀에 의해 강박했던 이스라엘 백성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각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말씀으로 세우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면서도 당시 시대의 사상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다.

첫째,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선포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다(행 17:24~26). 일부 기독교인들의 기복신앙(祈福信仰)이 큰 문제인 것은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여길 뿐 순종의 대상으로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낌없이 복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분이다. 또한 건물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다. 한 부부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이 흑인, 백인, 황색인종 등 피부색이 다양해졌지만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한 부부로부터 나온 형제자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공동체는 아담의 잃어버린 모든 후손들을 대상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전 세계 인류로 구성된 교회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교회공동체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정신, 창조 원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사도행전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공동체의 탄생을 보여주었다. 이



**“문제는 진리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전 세계, 전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공동체는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둘째,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바울의 이 두 번째 메시지에는 당시로서는 정말로 위험한 내용이 담겨있다. 황제, 귀족, 노예 계급이 존재하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혈통이라는 것은 황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바르고 정확하다. 진리의 말씀은 왜곡된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담대하게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모든 민족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경적일뿐만 아니라 과학적이다. 이미 1987년과 1995년 〈Nature〉 논문들을 통해 모든 여성들이 한 여성의 후손이며, 모든 남성들도 한 남성의 후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

말씀은 후에 월버포스와 링컨 등을 통해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일으켰다. 교회공동체는 언제나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공동체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분노와 폭력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죄인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노예(종)의 신분에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권면하고 있다(엡 6:5). 이것은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능력이 프로테스탄트혁명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기에 비폭력 독립만세운동으로 빛처럼 나타났다.

“나를 본받으라”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현재와 같이 어렵고 어

두운 시대에 왜 빛처럼 나타나지 못할까? 시대의 사상을 거스르면서 동시에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 내에서도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신화로 가르치고 있고, 아브라함조자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배우고 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지하는 교단도 있는 실정이다. 자신들의 신학이론을 성경말씀보다 위에 두고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신학교에서 당연시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진화론을 인정하는 유신진화론(진화창조론)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넓게 퍼져있다.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서 유신진화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을 꿈꿀 수 있나? 영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지금 시대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그들도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진리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전 4:16, 11:1, 빌 3:17)고 권면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필요하다. 특히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부모만으로는 신앙전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떤 부모가 사춘기 청소년들을 자신 있게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 교회의 조직과 운영으로는 신앙의 선배를 결코 만날 수 없다. 교회공동체 활동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성인부로 철저하게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동체 구조가 필요하다. 다양한 세대와 가정들이 함께 모여 순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하면서, 함께 신앙과 지혜를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쉽게 또래들을 만나고, 신앙을 가진 어른들의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공동체를 꾸무고 계시지 않을까?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청년부 영적성벽 재건 52일 기도회 'Build Up'

개인적인 기도제목을 두고 작정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에 요셉청년부에서 '영적성벽 재건 52일 기도회 Build Up' (이하 Build Up 기도회)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에서 자신이 없던 나는 Build Up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하나님은 Build Up 기도회를 통해서 나에게 세 가지 은혜를 부어주셨다. 첫째,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하는 방법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명제였다. 나의 기도가 어설프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부족한 나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던 기도가 더 이상 어렵지 않았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단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처럼



김경선 자매(요셉청년부)가 Build Up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둘째,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평소 나와 가족,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정되어 있던 기도대상들이 공동체, 교회, 선교지, 나라와 민족, 이 세대를 위한 간구로 확장되었다. 이전에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주변만 보던 나의 시선이 Build Up 기도회를 통해 더 넓어지고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나만 담겨있던 좁은 마음에 공동체, 민족, 이 세대를 위한 마음을 넣어주셨다.

셋째, 공동체가 연합하는 기쁨과 유익을 경험했다. 평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Build Up 기도회에 70~80여 명의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혼자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약속이 생기고, 몸이 피곤하고, 급히 처리할 일이 생겼다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흐지부지 중단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날마다 Build Up 기도회를 지키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나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전 4:12).

코로나19로 인해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제목을 붙들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 자체가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된다.

혼자서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했다면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무너진 성벽을 쌓으니까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감사했다.

남은 Build Up 기도회 여정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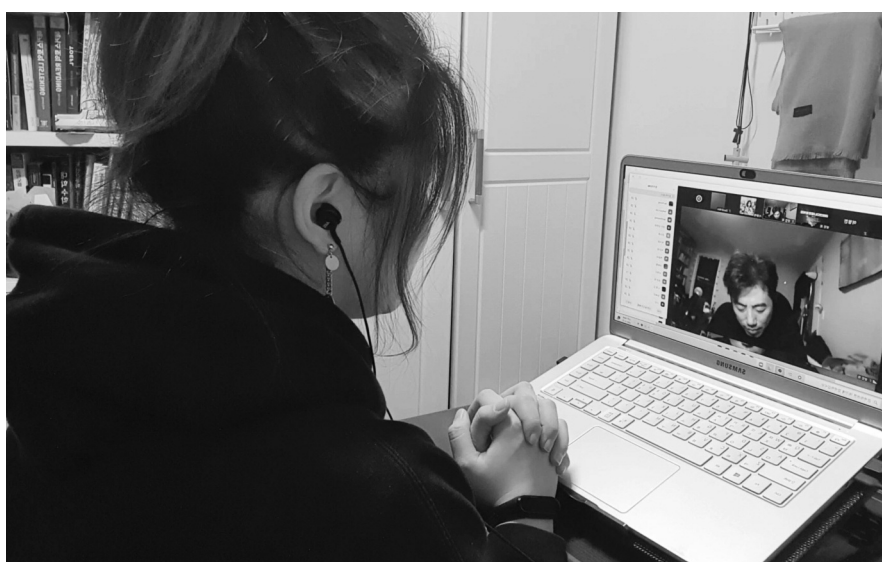
/ 김경선 자매(요셉청년부)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허브대학부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

작은 순종으로 인한 작은 성공이 교만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 인생의 굴곡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해왔다. 그러나 낮아진 나의 마음은 작은 성공에도 쉽게 교만하게 된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귀한 자녀인데,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며 회의감이 들고 통탄스럽기 짝이 없을 때가 많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송한 감정이 가장 먼저 올라온다. 힘들 때만 주님을 찾기 때문이다. 힘들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주 앞에서 돌이키기 전까지 내 자신이 아주 잘해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전진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열 걸음이 되지 않을 거라는 속삭임에 내 마음이 떨리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순간 내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의 하루가 오늘도 부진했다는 속삭임도, 두 다리의 힘을 쉼 빠놓는 힘든 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내 연약함이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쇠임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 고난에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도, 내 인생



이정진 자매(허브대학부)가 온라인 기도회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에서 기도하고 있다.

과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했다. 무엇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 같이 하루에 세 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회를 준비해주신 것이 감사했다. 허브대학부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11월 한 달 동안 하루 세 번, 15분 동안 기도하는 프로젝트)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내가 받았던 음성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었는지 헛갈리고,

혼자 가는 것 같아서 외롭다고 느끼고 있던 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기도의 자리다. 하루에 3번, 15분씩 줌(ZOOM)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회를 위해 24시간 내내 열려있는 줌 기도방이 있다. 나는 기도회 시작 30분 전에 미리 들어가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읽고 기도회 시간이 되기를 기다린다. 기

도회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인도를 따라 15분 동안 기도를 한다. 나를 위한 기도제목이 아니다. 공동체와 선교사님, 나라,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마터면 내 자신을 위한 간구로만 끝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며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 기도회를 허락하셨다.

순 단체채팅방이나 다락방 단체채팅방에 조용히 기도회 링크를 올려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 주셨다. 같이 사역하고, 같이 나눔하는 친구들과 온라인 기도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힘이 난다.

광야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때, 소망이 있을 때 광야는 참고 통스럽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기적 가운데 살지만, 광야 자체는 알 수 없고 힘겨운 과정이다. 그렇지만 광야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느껴지기에 광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다.

/ 이정진 자매(허브대학부)

광야가 감사한 이유



코로나19, '이웃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프로젝트 참가 농어촌교회 간증

경상남도 창원군 유어면 면사무소 바로 뒤에 위치한 마수원교회는 출석 교인이 8명인 작은 시골교회다. 이 지역은 인근에 공장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지역농가들은 마늘과 양파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마수원교회 교인들도 대부분 마늘과 양파 농사를 짓고 있다. 주변에는 학교조차 없어 주일학교가 없지만 나름 동네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온누리교회와의 인연은 3년째다. 3년 전 분당 할렐루야교회 모 집사님이 “농어촌미자립 교회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을 소개해 주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올 가을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추수감사절을 기리며 농어촌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지역에서 쌀을 구입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사르밧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지역농가나 농업협동조합에서 좋은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수원교회가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전화를 받고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온누리교회에서 직접 쌀을 구매하면 덜 번거롭고 훨씬 빠를 텐데 농어촌교회와 지역농가들까



황홍규 목사(창녕 마수원교회)의 도움으로 구입한 쌀은 온누리교회 안팎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지 고려한 사역을 한다는 게 감사했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동참하면서 정말 큰 활력을 얻었다. 창녕군 창녕농협에 가서 사르밧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협조를 구했다. 사르밧 프로젝트의 취지를 들은 창녕농협에서 크게 반기며 쌀을 준비해줬다. 좋은 일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시종가장보다 저렴하게 좋은 쌀을 제공해줬다. 농협, 택배회사 등 사르밧 프로젝

트를 준비하며 만났던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교회가 이런 일도 하나”며 놀라곤 했다. 그중에는 “교회가 자기생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웃들에게 나눌 줄도 안다며 교회를 다시 봤다”고 말하는 지역주민들도 있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수원교회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우선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힘들었다. 성도들의 나이가 젊으면 영

상 예배를 적극 활용하겠지만, 80세가 넘는 성도님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다. 어르신들께는 기독교 방송과 라디오를 들으시라고 안내했다. 나는 아내와 둘이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개신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몇몇 지역주민들이 나에게 “교회가 왜 그러느냐”, “당신이나 TV에 나오는 목사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며 무차별적인 비난을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에게 큰 활력을 불어 넣어줬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 사르밧 프로젝트는 농어촌교회에 좋은 기회였다. 교회를 알릴 수 있을뿐더러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역에 동참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매년 사르밧 프로젝트를 실시하면 좋겠다. 쌀이면 쌀, 사과면 사과, 각 지역 특산품을 찾아 여러 농어촌교회와 함께한다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농어촌 곳곳에 부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칫 어려움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던 시기에 온누리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정말 감사했다.

/ 황홍규 목사(창녕 마수원교회)



코로나19, '이웃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프로젝트 참가 농어촌교회 간증

나는 이 마을 토박이로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구례 광의교회는 지난 12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일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근래에는 1, 2부로 주일예배를 나눠 드리고 있지만 예전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덜했던 농어촌교회도 이 지경인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은 짐작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 힘든 와중에 온누리교회가 이웃들과 농어촌교회를 위해 사르밧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나눔이란 풍성할 때 나누는 것보다 어려울 때 나누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사르밧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어서 큰 은혜였다.

나는 평생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다. 특히 쌀 맛에는 자부심이 있는 농사꾼이다. 내가 농사 지은 쌀 맛은 지역에서도 제법 소문이 나 있다. 맛도 맛있지만 지역 노회장을 역임하며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온누리교회가 사르밧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구례지역 목회자들에게 수소문했더니 한 교회 목사님께서 나를 추천해주셨다고 한다. 온누리교회에서 연락을 받고 고민



김종구 장로(구례 광의교회)가 올해 농사 지은 가장 맛 좋은 쌀을 사르밧 프로젝트에 나눴다.

조차 하지 않고 사르밧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정말 기뻐다.

우선 농사꾼으로서 내가 농사지은 쌀 맛에 대한 자랑을 하고자 한다. 이웃들에게 얼마나 좋은 쌀이 전달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평생 농사를 지은 나에게 ‘어떻게 하면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할까’가 끊이지 않

는 과제이다. 몇 가지 비결이 생겼는데 첫째, 좋은 토양이다. 토양이 건강해야 쌀 맛이 좋다. 비료를 많이 쓰면 수확량은 많아지지만 밥맛은 떨어진다. 나는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퇴비를 많이 넣고, 친환경 보약을 투입한다. 핵심은 논에서 나온 벼짚 100%를 그대로 땅에 환원하는 것이다. 둘째, 쌀알의 건조 정도다. 보통은 수분 15%를 날린다. 그러면 밥맛

은 좋지만 한 달만 지나도 쌀이 부식되고 오래 두면 벌레가 생긴다. 나는 13~14%를 말린다. 그렇게 하면 1년을 두고 먹어도 쌀 맛에 변화가 없다. 올해도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었다. 9월 중순 온누리교회의 연락을 받고 추석 다음날 4천 평을 전부 추수했다. 감사하게도 밥맛이 정말 좋은 상급품질의 쌀이 나왔다. 이웃들에게 나누는 쌀이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10% 저렴하게 가격을 매겼다.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 있다. 바로 “이웃들과 나누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정말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이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큰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지탄을 받아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누리교회가 앞을 내다보고 큰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쌀을 추수하고 포장해서 보내는 동안 나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 부디 이 쌀을 받아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나와 같은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 김종구 장로(구례 광의교회)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



책 읽어주는 목사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테라피〉
김영정 저 | 한국경제신문 | 18,000원

일요일 오후 7시에 드러지는 열린새신자예배는 성도들이 전도하기 원하는 지인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할 때 동역하는 공동체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신하기까지 사랑과 헌신 가운데 섬기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열린새신자예배 웰컴팀과 세례팀이 새신자들을 섬기면서 경험한 인

상 깊은 일화들이 있다. 새신자들이 색상(color)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결신과 세례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다. 주보의 디자인과 색상, 시기와 주제에 따른 예배 무대 소품들, 찬양팀 의상의 색상, 일상의 자연 풍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감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다채로운 예배를 통해 친한 사람들에게도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예배 가운데 어느 날은 나에게 깊이 공감되고, 마음을 크게 울리는 그런 날 말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은 너무나 다르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하지만은 않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

고 믿음 안에서 달려왔지만 매 순간 눈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과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로 인해 지쳐가는 육신과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한 예배와 일상의 컬러들을 통해 새로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일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를 누리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손에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귀한 강의를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앞이 캄캄하고 남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선물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보아야 피조물로서의 정체성과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을 바로 보고,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윤준석 전도사
(열린새신자예배)

“이 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을 바로 보고,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들을 돌아보고,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고백도 있었다. 색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다. 각자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색상을 통해서도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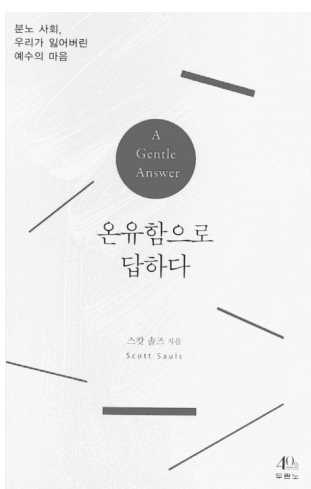
잠시 생각해보자. 매일 오고 가던 출퇴근길 풍경의 색상들, 집 근처 산책로나 인도의 나무와 꽃들, 같은 하늘이어도 매일 구름의 모양과 석양의 풍경이 달라진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지만 계절마다 다른 환경으로 인해 꽃의 종류와 모양과 색깔도 다양하다. 그것

처럼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 심지어 주님의 응답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한없이 기도만 하는 날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각자의 마음과 기도제목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듯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자연과 삶의 환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도 다양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지금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와 가을이라는 계절의 특징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육이 가난해지고 낙심되기 쉬운 시기이다. 저자도 이러한 어려움을 지금도, 그리고 이전에도 경험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두란노 신간

분노한 사회를 쉬게 할 힘



〈온유함으로 답하다〉
스캇 솔즈 저 | 두란노 | 15,000원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분노 사회’라고 말한다. 우리는 많은 순간 분노에 사로잡힌다. 동료와 충돌할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의견이 무시당할 때, 가족과 부딪힐 때 등 많은 순간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분노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온유함으로 답하다〉의 저자 스캇 솔즈는 “예수의 온유만이 이 분노한 사회를 쉬게 할 힘”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온유함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저자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적절한 예화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조금 더 쉽게 온유함의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읽으면 분열되고 분노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스천이 보여줘야 할 온유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또한 그리스천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 지침을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시

18:35).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 온유함으로 분노를 깨뜨리고,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호흡과 박동

세상 모두는 호흡과 박동
살을 빨아들이고
죽음을 내뿜으며
생기를 혼신에 돌려댄다
언제까지나 살고 싶어서

미립자 분자 세포들
호흡을 가다듬고
박동에 맞추어
발장구치며
살 곳을 향해
쉬지 않고 헤엄친다

너와 나 우리 전부
파도를 오르고 넘느라
숨차고 가슴 설레지
호흡이 마음을 조절하니
박동은 생각을 다스리지

— 이원로 장로의 시선집 〈감사와 공감〉 중에서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 펀딩

무슬림 교육하는 '스타트리 협동조합' 후원



무슬림들이 스타트리 협동조합에서 교제하고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 펀딩이 한창이다. 느헤미안 프로젝트는 1만사역팀에서 실시하는 성도가 후원자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 펀딩은 스

타트리 협동조합을 후원한다. 스타트리 협동조합은 온누리M미션에서 발족한 단체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1만사역팀에서는 느헤미안 1기 펀딩 수익금으로 스타트리 협동조합에 빔 프로젝터와 기타 집기 등을 후원할 예정이다.

느헤미안 프로젝트 펀딩은 홈페이지(nehemiahproject.imweb.me/startree)에서 참여할 수 있다. 펀딩 금액은 2만 원, 4만 원, 6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펀딩 참여자에게는 리워드로 더치커피를 지급한다. 문의: 이승현 총무(010-6408-9851)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전도집회'

11월 22일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 본당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11월 22일(주일) 대전 온누리교회 6층 본당과 세종교육관 본당에서 막 오른다. 대전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세종교육관 본당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전도집회는 김상수 목사(대전 온누리교회)의 설교, 게스트 특순과 간증, 결신 등의 순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게스트는 '같이 걸어가기(염평안, 임성규, 조찬미, 대표곡 요게벳의 노래 등)'와 '박위형제(유튜브 WERACLE 채널 운영자,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연)'이다.

김상수 목사(대전 온누리교회)는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전도집회에 참가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 도서관 대출 및 반납 재개

11월 22일부터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11월 22일(주일)부터 온누리 도서관이 재개된다. 도서 및 DVD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 도서 열람은 할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온누리 도서관은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된다.

온누리 도서관에 입장할 때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체온측정 및 방문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온누리 도서관은 온누리교회 기독문화전시관(구 EM전시관) 내에 위치해 있다.

문의: 02-749-3110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의 사역칼럼

엔젤트리의 계절이 왔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이 행군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지대는 지구촌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그 대표적인 변화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비즈니스 업계에 지각 변동을 몰고 왔다. 비대면 상황에서 전보다 번창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 변화의 영향은 교회에도 미치고 있다. 대면이 꼭 필요한 사역은 움츠러드는 반면 비대면으로 가능한 사역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OBC(Onnuri Bible College)다. 영상으로 OBC를 수강할 수 있게 되자 코로나19 이전보다 수강생이 몇 배 많아졌다. 타격을 입고 있는 사역 중 하나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사역이다. 사랑의 손길이 닿기 어려워지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봄 진행했던 '공감소비운동'과 추수감사절에 진행했던 '사르밧 프로젝트'가 예상을 뛰어넘는 열매를 거두었다. 이제 엔젤트리의 계절이 다가왔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부터 엔젤트리를 시작했다. 첫해에는 2,045건의 사연이 접수됐고, 매년 사연이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4,558건의 사연이 접수되었다. 모든 사연에 따뜻한 메시지와 선물이 전달됐다. 감동적인 사연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엔젤트리는 코로나19 시대 상황에 맞춰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물론 사역팀은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다.

올해 엔젤트리에는 예년보다 취약계층의 사연이 대폭 증가했다. 공감소비운동은 온누리교회 성도와 교회 밖 이웃들의 비중이 거의 비슷했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사역 대상자의 70% 정도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엔젤트리는 사역 대상자 80%가 교회 밖 이웃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엔젤트리를 진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성숙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믿는다.

온누리세계관학교 수강생 모집

온누리세계관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된다.

온누리세계관학교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번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는 '부부'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11월 1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3724-7666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 P.P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어머니 P.P(Power Prayer)기도회'를 연다.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 P.P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부채탈출119: 청장년 부채 해결 프로젝트'

11월 30일까지 이메일과 팩스 신청

사회선교본부에서 '부채탈출119: 청장년 부채 해결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부채탈출119는 전문기관과의 상담,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개인 및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성도 혹은 온누리교회 성도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11월 30일까지 이메일(skyaiaman@naver.com)이나 팩스(02-6455-2644)로 보내면 된다.

부채탈출119에서는 기초상담, 진단, 대안검토, 실행지원, 관리상담 등 장기단 집중관리를 해준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되고, 1대1로 진행된다.

문의: 010-2636-3777, 02-3215-3434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중보기도학교-기도로 하늘문을 열라!'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온라인 세미나 '중보기도학교-기도로 하늘문을 열라!' (이하 중보기도학교)를 개최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 8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보기도학교에서는 중보기도 사역의 정의,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중보기도의 실제적인 사역영역, 여리고 기도작전 등을 주제로 박춘광

목사(신동탄지구총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면 된다. 주차별 동영상 게시일로부터 2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회비는 15만 원이다. 1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 간증



/ 김태수 성도(노원공동체)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 초청잔치를 하는데 한번 오실래요?”

“못 간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오는 길에 행복드림콘서트에 초청하려고 은근슬쩍 물어 보았는데 역시나 대답은 거절이었다. 아버지는 올해 83세다. 경북 강구항 근처에 사신다. 연세도 있고, 기저질환도 있어 늘 불안하다. 자식 된 입장에서 아버지 영훈구원이 더욱 간절하다.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구원, 교회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완고하게 거절하셨다. 그래서 행복드림콘서트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신청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행복드림콘서트를 하게 되면서 내 기대는 더욱 흐려졌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다.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을 보는 당일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주일예배를 드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저녁 7시에 시작하기로 계획했다. 어머니와도 미리 이야기를 맞춰놓았다. 꽃바구니도 감춰놓았다.

드디어 저녁 7시가 되었다. 아버지께 교회

우리 아버지 예수 믿은 날

잔치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TV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선뜻 보시자고 하셨다. 아버지는 가수 노사연, 이무송 부부와 트로트 가수 신인선 씨의 노래에 푹 빠지셨다. 그리고 나의 영상편지가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마음이 잠깐 흔들린 것 같았다. 이어서 목사님 말씀과 결신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편지를 읽어드리고 꽃바구니와 준비한 선물을 드렸다. 아버지는 평생 꽃 선물은 처음 받으신다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셨다. 그토록 오랜 시간 종용하고 말씀드릴 때는 거부하시더니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또한 조원들과 순 식구들과 조원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 행복드림콘서트에 참여하면서 아버지의 영훈구원은 자식인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드림콘서트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과 기도해준 조원들과 순 식구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어느 선교사의 묵상



그리고 본향을 그리워한다

/ 황충성 선교사(남아시아 A국)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에 있는 Acts29비전빌리지의 위치가 절묘하다. 근처에 있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존재 때문이다. 숨을 헐떡이며 걷다가 자연의 조화를 본다. 그리고 가장 숨이 찬 힘든 지점에서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에 들어선다. 안으로 들어서면 먼저 온 순교자들이 길 양쪽에 서서 응원하고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 순교자들과 천사들의 대열을 지나 마지막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간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닦을 여유 없이 주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껴안아 주신다.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다.

“사랑하는 아들이 수고 많았다. 집에 잘 돌아왔다. 나의 장막에서 안식에 들어와 우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요즘에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문 양쪽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인다. 마당 끝 한편에는 한국 개신교의 대표 순교자 주기철 목사와 박관준 장로의 기념비와 대형 십자가가 있고, 마당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담은 큰 도자기 화병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기념관 내부를 재단장하는 공사 때문에 전시품을 밖에 내다 놓은 덕분에 그곳을 갈 때마다 십자가 그림을

대하는 은혜를 누린다.

그 길은 그리스도인만 걷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걷는다. 그 길을 오가며 마주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눈인사와 가벼운 목례로 서로를 격려한다. 마을에 사는 이들이나 선교센터에 거주하는 이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며 길가에 서서 대화를 한다. 그 길을 함께 걷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은 거기까지다. 그들은 그 길 끝에 있는 순교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석들을 무심히 보며 지난다. 하루에 한두 번 운동을 위해 드나들지만 정작 그곳이 영적 세계와 천국을 만나는 장소, 순교자들을 만나는 천국의 문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게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은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한적한 관광지일 뿐이다.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걸으며 추억을 쌓는 곳이다. 그곳이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 자리해야 할 성지임을, 천국을 일깨워 주는 곳임을 잊으면 안 된다. 모두 떠나고 오늘도 나는 아내와 함께 그 길을 걸어 오르며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먼저 천국에 들어간 순교자들의 이름을 대하며 본향을 그리워한다.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김정은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는 창조신앙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싶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로 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창조론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었다.

첫 시간부터 정말 흥미로웠다. 과학자들이 설계와 우연을 구별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설계된 것에는 설계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신기했다. 누군가 설계했다면 분명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두 번째 강의 ‘성경과 과학’에서는 성경에는 과학적 사실과 초과학적 사실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아담의 갈비뼈였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조차 초과학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한 야곱의 양 또한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 역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봤던 진화론에 근거한 인류 진화 계보도 배웠다.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많은 근거를 가지고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같으며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후손이며, 인종에 따른 유전적 차이가 없다는 것,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오직 사람의 유전 정보 시스템만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은 오직 사람에게서만 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대홍수 심판 이전 장수의 비밀’ 강의를 들으면서 흥미로운 상상들을 해보았다. 창세기에는 장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므두셀라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다. 만약 9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또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지 재미있는 상상들을 해보았다.

믿음만 가지고 믿어왔던 것들을 창조과학을 통해 깊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내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창조신앙아카데미 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린다.

온라인 와이미션(Why Mission?) 수료 간증



/ 노숙희 성도(OCC공동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몇 년 전 와이미션(Why Mission?) 강의 일부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와이미션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싶었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시작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출장도 없어지고, 온라인 와이미션 과정이 열리게 되면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선교에 관심과 마음이 있었다. 청년 때부터 알던 형제자매들이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어서 가끔 적은 금액이라도 선교헌금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선교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온라인 와이미션 과정을 수료하면서 선교적 삶은 한 번씩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

온라인 와이미션 과정을 수강하며 선교사 자녀인 보라 자매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보라 자매의 고등학교 입시 준비부터 합격 소식을 들 때까지 중보기도 하는 기쁨이 있었다. 보라 자매는 부모님이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고, 중앙아시아에서 자랐다. 그 때문에 한국어

와 영어를 어려워했다. 그런 보라 자매가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세심하심을 맛보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감사했던 보라 자매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는다.

온라인 와이미션 과정 필독서인 제임스 레이저 선교사님의 <산비>를 읽으며 믿음의 기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 삶과 물질, 기도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한다.

희미해지고 모양만 남은 것 같았던 선교에 대한 마음을 온라인 와이미션 과정을 계기로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장로칼럼

나는 그곳에서 열방을 봤다



심길섭 장로
(강촌공동체)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선교는 현지인이 선교의 주인공이 되고 선교사들은 조력자가 되어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현지 사역자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용조 목사님은 일찍이 미전도종족 현지인 사역자 양성을 위해 핏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핏볼트리니티)를 지원하셨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십여 명의 핏볼트리니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아낌없이 수여하고 있다.

내가 핏볼트리니티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다. 핏볼트리니티 학생들과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QT를 나누면서 나는 그곳에서 열방을 봤다. 그들은 준비된 현지인 사역자였다. 그들에게는 사역베이스와 성도들이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현지에서 사역할 수만 있다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였다. 이라크 말라드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와 연합해서 사역하는 핏볼트리니티 졸업생의 좋은 모델이다.

그런데 영어까지 능통한 인재들인 장학생들은 단지 장학금을 받을 뿐 온누리교회와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 핏볼트리니티 학생들은 주일예배는 서울 등지의 교회에서 드리고 있었다. 교회의 비전보다는 사례금이 두둑한 교회를 찾아갔고, 신입생들은 선배들의 안내를 따라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다.

나도 핏볼트리니티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자니 핏볼트리니티 학생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귀담아듣지 않으려 했다.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할 강제성도 없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핏볼트리니티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쫓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들을 돌보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핏볼트리니티 학생들을 섬겼다. 휴대폰 개통을 돕고, 필요하다면 은행까지 쫓아다녔다. 시간이 지날수록 핏볼트리니티 학생들이 마음을 열었다. 일대일제자양육과 QT로 삶과 신앙을 나눴다. 든든한 조력자들도 생겼다. 영어예배 일대일제자양육팀에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핏볼트리니티 학생들과의 일대일제자양육을 도왔다. 관계가 쌓이기 시작하자 교회 밖으로 돌던 핏볼트리니티 학생들이 하나 둘 온누리교회에 발을 붙이기 시작했다.

지금 교회의 도움으로 외국어예배와 온누리 M미션에서 핏볼트리니티 학생들이 온누리교회 각 언어권 예배에서 사역하고 있다. 영어예배 중등부를 섬기는 조슈아(탄자니아)는 핏볼트리니티를 졸업하면 친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섬길 예정이다. 핏볼트리니티에서 수학하며 온누리교회에서 차세대사역을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온 김알렉산더, 미얀마에서 온 마이, 우간다에서 온 만지대니는 고향으로 돌아가 사역을 펼칠 꿈을 꾸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 각 공동체에서 핏볼트리니티 학생 한 명씩 교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미 학비와 숙식비는 장학금으로 해결되고 사역을 하며 소정의 교통비도 받고 있어 금전적인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학생들은 온누리교회와 공동체를 더 배우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 때로는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공동체에 배에 초청해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핏볼트리니티 학생들이 현지로 돌아가서도 공동체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최근에는 많은 아프리카권 학생들이 핏볼트리니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그들을 담을 수 있도록 아프리카예배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다.

권사칼럼

텃밭에서의 사색(思索)



박인옥 권사
(부천 온누리교회)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삶이라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다 마지못해 펜을 들었다. 펜을 들고도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치사한 모습뿐이라 망설여졌다. 그래도 내게 주신 일상의 은혜들을 되짚어보며 글을 써본다.

이웃집에서 가꾸지 못하는 텃밭이 하나 있어 우리가 가꿀 수 있게 양해를 구했다. 작은 씨앗 하나하나 심어가며 텃밭을 가꾸는 재미가 꽤 쏠쏠했다. 온종일 텃밭을 가꾸는 데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다. 그러다 문득 내가 너무 텃밭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텃밭에 나가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절제가 왜 성령의 열매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밭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곡식들처럼 나의 신앙도 단단히 뿌리내리고 자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다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텃밭에 심은 곡식과 열매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열매들을 보고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가꾼 열매를 자랑할 겸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머릿속에서 보파리를 쫓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나눠주고픈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다 보니 당장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절대 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줬다가 후회할 것 같은 사람들도 떠올랐다.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취했음에도 좁쌀만 한 마음을 품은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추수를 하면서 60년 가까이 살아온 시간들을 들여다본다. 가족과 교회 식구들, 이웃들을 떠올려본다. 나의 어리석음과 무례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어 회개했다. 내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나는 그 시간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머릿속으로만 쫓던 보파리를 내 손끝으로 직접 묵었다. 수확한 열매와 곡식을 보내기 시작했다.

수확한 곡식과 열매들이 내 손을 떠나고, 비어가는 텃밭을 보고 있자니 감사함이 밀려온다. 비워짐에서 감사를 배워가고 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의 욕심이 이따금씩 찾아온다. 욕심을 비우고 은혜롭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은 비워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누군가를 돕고 나누며 내 손에 쥔 것들을 비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살전 4:11~12).

바울의 고백처럼 조용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성실히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삶을 보람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많은 이웃들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고 싶다. 글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 감사가 넘쳐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감사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신앙에세이



이우람 목사
(허브대학부)

TV 프로그램 중에 생존을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정글의 법칙’이다. 정글의 법칙은 생존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낸 리얼 버라이어티이다. 사람들은 생존경쟁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한다. 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할까? 이유는 단 하나다. 생존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존하기를 원한다. 정글 숲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지만, 우리의 일상도 아스팔트 위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며 살아간다. 성경에서도 살아남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

람은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서 연못에 들어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38년 된 병자이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다섯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요 5:2~4).

사람들은 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베데스다’의 본래 뜻은 ‘은혜의 집’이다. 이름에는 ‘은혜’가 있지만 그곳에는 은혜가 아닌 ‘경쟁’만 남아있었다.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걸여가지 못하기 때문에 엉금엉금 기어가다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경쟁을 뛰어 넘는 은혜

실패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경쟁에서 밀려있거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만약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물으셨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요 5:6).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병 낫기를 원하는지를 아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더 열심히 경쟁하고 생존하라고 부추기지 않으셨다. 그 모든 경쟁을 뛰어넘는 은혜로 임하셨다. 경쟁을 뛰어넘는 은혜로 경쟁을 덮어버리셨다. 은혜로 살려주

신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살게 되는 세상의 원칙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려면 가장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야 한다. 너 살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달려가야 한다. 반드시 일등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런 일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한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존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쓰러지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참된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받고도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죄에 대한 형벌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연합하지 않으면 형벌만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과의 연합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의 죄악을 다 끊으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죄악을 끊는 은혜의 역사

백성들이 죄악의 사이클을 끊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죄를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혹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섭게 처벌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의 자유의지로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수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고 주의 예언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들을 이웃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30절).

수년 동안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수백 년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는 하나

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은 천 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루처럼 여길 만큼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꾸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주시되 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길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상황과 말씀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진실히 행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31절).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을 끊는 것은 무한히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제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진 사랑은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오는 이들은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도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롬 6:1~2).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시는 은혜의 힘이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징벌 그 자체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게 합니다. 죄의 대가는 치르지만 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죄를 끊을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38절).

회개의 마지막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느헤미야, 제사장, 관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서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이후 서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참된 회개 이후 일어나는 서약이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 서약을 맺는 모습이 진짜 성벽이 재건된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과 회개가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이 진정한 성벽 재건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깊은 회개를 통하여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부흥의 역사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전도 클리닉 - 3

회심의 필수요소 및 방해요인과 그 해결방안

불신자가 회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째,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령은 사람들이 진리를 간절히 찾도록 상황과 마음에 역사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의미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심하도록 강하게 촉구하신다.

둘째, 복음(메시지)이다. 회심이 일어나려면 먼저 복음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롬 10:17)이다.

셋째,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려면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롬 10:14-15). 전도자는 회심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며, 복음을 분명히 전해주는 사람이다(롬 1:5; 벰전 3:15).

넷째, 복음을 잘 듣는 것이다. 회심하려면 우선 복음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롬 10:17; 딤후 3:14; 히 4:12-13). 불신자 중에는 복음을 여러 번 꾸준히 들으면서 조금씩 깨닫다가 마침내 회심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리처드 피스(Richard Peace)는 저서 〈신약이 말하는

회심〉에서 “깨달음은 회심을 촉진시킨다”면서 “깨달음이 없으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없고, 회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불신자의 회심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다. 네 가지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롬 10:14)이다. 삶의 참된 의미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지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마 9:35-38). 필자가 일본인 크리스천 55명의 회심 간증을 분석한 결과, 그 중 46명은 신도, 불교 등의 영향이 강한 가정에서 태어나 종교행사에 많이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허무함과 무력감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리를 찾기 위한 진지한 시도를 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교회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랜 시간 복음을 들어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둘째, 변질된 회심의 의미 때문이다. 알랜 크라이더(Alan Kreider)는 저서 〈회심의 변질〉에서 초대교회부터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회심이 변질되었다고 했다. 크라이더는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합법화되었지만, 그는 세례도 받지 않고 신앙문답도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세상에 허락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셋째, 성급하고 축소된 복음 전도방법 때문이다. 현대에는 요약된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 기도로 마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크레이그 오토는 저서 〈선교신학의 도전〉에서 “씨를 뿌리자마자 곧 거두려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것이다. 이는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넷째, 불신자의 기존 문화, 종교, 세계관 때문이다. 전도는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 종교, 세계관이 깊이 뿌리내린 불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때 불신자의 마음에 뿌리내린 비복음적인 문화, 종교 및 세계관은 회심에 중요한 방해요인이 된다. 일본인 목회자 카츠모토 마사미는 저서 〈일본인의 마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에서 “범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며 선천적 악과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고 했다. 공동체의 신뢰관계와 공통의 유익을 위한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을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죄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회심의 방해요인들을 극복하고, 회심에 초점을 맞춘 복음전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회심의 의미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회심의 신학적 의미를 악화 또는 변질시키는 문제를 파악하고 성경적 선교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복음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복음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안적 전도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목상: 회심을 방해하는 요인들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는가?



조을희 선교사
(GMTC(한국선교훈련원) 교수)

가정을 세우는 CGNTV 프로그램



두란노 창립 40주년 & CGNTV 개국 15주년 특강

부부 공감 토크쇼

사연을 통한 나눔과 부부 대화로
성경적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강사 :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1강

서로 다른 우리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20분

2강

서로 잘 소통하고 싶어요.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40분

3강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40분

가정예배 회복 프로젝트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시간 라이브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주일 저녁 8시 50분 방송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참여방법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STEP 1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검색

STEP 1

유튜브 검색창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검색

STEP 2

친구 추가 후 알림 안내에 따라
라이브 가정예배 참여

STEP 2

채널 구독 후 실시간 댓글,
다시보기로 참여